

‘10조원 눈앞’ IP금융, 선진국도 배워간다!

- 특허청, 핀란드 특허청과 지식재산(IP)금융 영상실무회의 개최 (9.24.)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4.(화) 16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핀란드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IP)금융 정책사례 공유를 위한 영상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금융정책 및 성과공유에 대한 유럽연합(EU) 국가 특허청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양국 특허청 지식재산(IP)금융 담당 실무진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IP)금융 현황 및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IP)금융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난해 말 기준 잔액 9.6조원을 달성하였다. 지식재산(IP)금융의 성장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 회수지원사업,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 등 정책적인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IP금융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IP가치평가 지원 사업	기업이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지식재산(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유형) IP금융용(담보, 보증, 투자), IP거래·사업화용 지원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	특허청이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에서 자펀드인 IP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우수IP보유기업 또는 우수지식재산(IP)에 투자
회수지원사업	IP담보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 IP처분을 지원(매입·처분)하여 은행의 회수위험을 경감

특허청은 이번 핀란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프랑스 특허청과의 실무회의를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금융 성장 노하우를 더 많은 국가에 전파할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그동안 금융위 및 은행, 투자·보증기관 등 금융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해외에 지식재산(IP)금융의 정책사례 및 우수성과를 전파하고 앞으로도 여러 해외 특허청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IP금융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지식재산금융 개요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5258)
	산업재산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윤규선 (042-481-5309)

□ IP금융 개요

- (개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활동
- (절차)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가액 또는 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된 IP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이 보증·대출·투자 실행

구 분	내 용
IP담보대출	대출 신청 → 은행기관 평가의뢰 → IP가치평가 → 은행 대출
IP보증	보증 신청 → 보증기관의 IP가치평가 →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IP투자	투자 신청 → 투자기관 평가의뢰 → IP가치평가 → 투자기관 투자

□ IP금융 규모

(단위 : 억원, 잔액 기준)

구 분	2021	2022	2023	전년대비
IP담보대출	19,315	21,929	23,226	5.9% ↑
IP보증	32,147	36,575	40,931	11.9% ↑
IP투자	8,628	19,330	31,943	65.2% ↑
합 계	60,090	77,834	96,100	23.5% ↑

□ IP금융 효과

- 우수 특허 보유 低 신용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IP금융을 적극 활용

* '23년 IP담보대출 이용기업의 84.2%가 저신용등급(BB+등급 이하)

< IP담보대출 활용 사례 >

이차전지 및 자동화장비 제조기업 A사는 사업확장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이차전지 관련 특허 7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통해 100억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한 1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제60회 무역의 날'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